

## 【 독도 계기교육 】

### 1, 독도의 날 유래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을 통해 국내 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또한 독도의 날은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독도 수호대는 2000년 8월에 독도의 날을 선포한 이후 전시, 강연을 통해 '독도의 날' 제정취지를 알려왔다. 2008년 10월 25일, 독도수호대 등 관련 단체가 기념식 및 세미나를 하였고 전국적으로 독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울릉군에서는 조례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 2. 독도는 어떤 곳인가?

독도는 동해의 심해 해저에서 볼썽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일종의 해저산이다. 그 생성 시기는 신생대 제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로 밝혀졌다. 독도가 말형이라면 250~1만년전 사이에 형성된 울릉도는 둘째, 120만~1만년 전 사이에 형성된 제주도는 막내 뺨인 셋이다. 울릉도나 제주도는 분화구 등 화산체의 모습이 남아 있지만 독도에는 화산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파도의 침식으로 화산체의 원형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만들어진 화산체는 동도에서 서도를 지나 북쪽의 물개바위로 이어지는 선을 따라 원형 또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침식되고 남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 새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 천연기념물336호 - 1982.11.04-문화재관리청지정
- 소유자 : 해양수산부, 관리자 : 울릉경찰청

✚ **지리적 위치**(1989.7.22.교통부 수로국 측량자료)

- 동경:131도 52분 22.715초 883초
- 북위:37도 14분 12.883초 (독도 삼각점의 위치)

✚ **지리상의 위치**

-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90km (49해리: 1해리= 1.852km)
-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과 가장 가까움 약125km(120해리)
-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네마현의 오키섬 약160km  
(결국, 일본의 오키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 68km 가까움)

### 3. 독도에 대한 주요 쟁점

일본의 입장	한국 입장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b>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b> 예)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b>막부와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함</b>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b>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 가문의 문서(1600) - 죽도(울릉도)내 송도(독도)로 기록되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정함</b>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b>숙종실록과 일본의 문헌 죽도기사, 죽도 도해 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 죽도고에 기록되어 있음</b>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은 영유권 의사의 재확인 이었다.	<b>일본은 러.일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를 침탈</b>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작성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b>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연장선임</b> <b>연합국최고사령관677호, 맥아더각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 1952 한국정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평화선 선언)</b>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b>미공군은 한국의 항의로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시 제외함</b>

일본의 입장	한국 입장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독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행사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떤 이유도 없음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 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 독도의 가치

##### 1) 독도의 영역적 가치

- ①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독도는 군사적 ·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③ 독도는 위치상 기상 상황과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기에 적합하다.
- ④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 ①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 ②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 3) 독도의 환경 · 생태적 가치

- ①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경관이 나타나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조류와 철새의 중간 서식지이며, 토양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1999년 섬 전체가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